

# 대한상의 브리프

지속가능경영원 김현수 환경정책실장



2017년 9월 18일



중국의 환경시장은 성공의 잠재성 만큼이나 실패의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치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을 통해 중국 환경시장의 공략법과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국 환경시장 공략법 - 성공기업 사례

전 세계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 환경의식 제고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쳐 정부와 민간부문의 환경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투자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시장수요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0년에는 반도체 시장의 3배인 1조3천억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sup>1)</sup>으로 불리며 고속성장을 이어왔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한 환경오염의 몸살을 앓았다. 최악의 베이징 스모그와 잇따른 산사태를 계기로 중국정부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경제구조의 전환을 표명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신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중국의 환경시장은 최대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었다.

### 세계의 공장, 중국이 환경에 눈을 뜨다

중국은 1953년 발표한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매년 5년 단위로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왔다.

2000년 전후 처음으로 환경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동안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환경정책 목표로 삼아왔다. 지난해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sup>1)</sup>(2016~2020)에서는 환경이 화두로 등장했다.



### [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별 환경정책 방향 ]

시 기	9차 5개년 계획 (1996~2000)	10차 5개년 계획 (2001~2005)	11차 5개년 계획 (2006~2010)	12차 5개년 계획 (2011~2015)	13차 5개년 계획 (2016~2020)
핵심개념	지속가능 성장	녹색산업 발전	녹색산업 발전	친환경 사회	생태운영 건설
정책방향	환경보호 개념 제시	환경보호 초기 모델	에너지 개혁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감축 제시	강제적 감축 친환경 인프라

1) 계획 : 10차 5개년 계획까지는 '계획'(计划)으로 명명했으나 계획경제의 색채를 희석시키고 시장기능 강조를 위해 2006년부터 기존 '계획'을 '규획(规划)'으로 수정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경제계획 핵심목표 중 하나로 ‘친환경’이 선정된 것이다. 물, 에너지, 이산화탄소 등 환경분야별로 강제적 감축목표도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이 발효·시행되고 각종 행정법규와 규칙, 표준 등도 강화됐다.

신환경보호법
누적 벌금제 신설 등 벌금 강화 사전 환경영향평가 필수 환경부 권한 및 감독책임 강화
대기오염방지법
배출총량억제 전국 확대 석탄 감축 및 청정에너지 확대 처벌강화 및 벌금 상한 폐지
수질오염방지법
수질오염물 배출표준 강화 책임규명 및 손해배상 제도 지역별 배출표준 강화 허용
집행과 단속 행정법규
강화된 환경규제 적용 매뉴얼 환경사고대응 및 손해배상 명문화 환경주관부서 권한과 수단 강화

## 거대한 중국의 환경시장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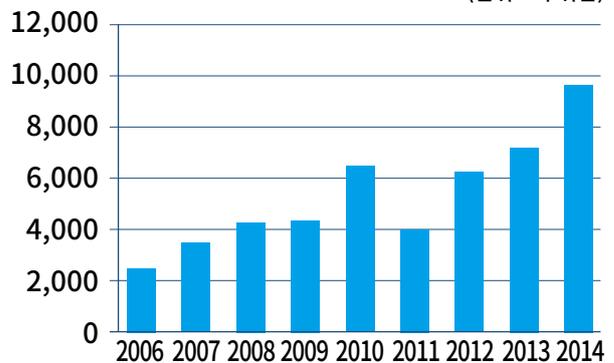
중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와 친환경 정책은 중국 내 기업들의 환경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오염처리 비용이 커지면서 환경시설 투자가 늘었다.

동시에 환경기술 개발 등 환경산업 투자도 증가하면서 중국 환경시장은 급속도로 커졌다.



### [ 중국 환경오염처리 투자액 ]

(단위 : 억 위안)



※ 자료 : 중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즈엔리서치센터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 동안 매년 15~2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중국 환경시장은 「신환경보호법」을 계기로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 동안 투자규모가 약 17조 위안(약 2,9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중국 환경시장 진출 사례(KOTRA)

	프랑스 베올리아(VEOLIA)
	‘폐기물 소각 발전소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저우시 시범사업인 중국 최초의 중온·고압 폐기물발전소 건설 프로젝트</li> <li>- 광둥성 폐기물 처리시장 선점 위해 프로젝트 설계단계부터 기술 제공</li> <li>- 현지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하여 입찰 참여</li> </ul>	
⇨ 적극적인 기술이전 통해 폐기물처리 시장 공략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b>프랑스 수에즈(SUEZ)</b> ‘생태 습지 개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초로 시도된 습지를 이용한 공업오수처리 프로젝트</li><li>- 중국내 오수 배출규제 강화로 오수처리시장 확대</li><li>- 수에즈사와 상하이화학공업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현지법인 설립</li><li>- 수에즈사에서 과거 시행한 프로젝트와 습지연구과제를 참고하여 프로젝트 설계</li></ul> <p>⇒ <b>축적된 프로젝트 노하우와 연구실적 활용</b></p>	

	<b>미국 퓨얼테크(Fuel Tech)</b> ‘산업현장 전기집진기 설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국 내 심각한 스모그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프로젝트</li><li>- 베이징에 현지법인 ‘베이징 푸타이거 환경보호과학기술공사’ 설립</li><li>- 중국기업 ‘중국절약환경보호그룹’, ‘장쑤커싱 그룹’과 업무제휴 맺고 대기정화 프로젝트 참여</li></ul> <p>⇒ <b>기술력이 부족한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b></p>	

	<b>네덜란드 Suzhou CPS Technology</b> ‘공업폐수처리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화, 염색, 도금 등 환경오염유발산업이 밀집한 장쑤성의 공업폐수처리시장 진출</li><li>- 중국과 합자형태로 현지법인 Suzhou CPS Technology 설립</li><li>- 전체 직원의 1/3이 기술개발 인력으로 차별화된 핵심기술 보유</li><li>- 1년 품질보증 및 10년 A/S서비스, 24시간 A/S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된 사후관리</li></ul> <p>⇒ <b>기술력 바탕으로 기업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b></p>	

	<b>한국P사</b> ‘산업현장 전기집진기 설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업용 전기집진기 ‘마이크로 펄스 하전장치’ 세계 최초 개발</li><li>- 대기오염이 심각한 발전소, 제철소 밀집지역의 전기집진기 시장에 진출</li><li>- ‘직접납품 계약’과 ‘에이전트를 통한 입찰 참여’의 두 가지 진출방식 동시 진행</li></ul> <p>⇒ <b>기술우위 활용한 단독진출. 철저한 기술보안 유지</b></p>	

	<b>일본 토모에 엔지니어링 (TOMOE Engineering)</b> ‘슬러지 탄화처리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후베이성 양란호의 수질 악화 개선 프로젝트</li><li>- 프로젝트를 수주한 중국기업에 슬러지 탄화기술 이전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li><li>- 기술이전과 동시에 탄화로, 건조기 등 주요설비 납품</li></ul> <p>⇒ <b>기술이전 후 주요설비 납품. 현지기업과 Win-Win 전략</b></p>	

	<b>한국 M사</b> ‘수처리시장 유량계 납품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하수도과 댐 건설, 대규모 물공사 등으로 수량 계측기 수요 증가 예측</li><li>- 판매망을 갖춘 중국기업과 합작한 ‘베이징M 유한공사’ 설립</li><li>- M사는 핵심부품인 센서, 컨트롤러를 수출하고 중국기업이 완제품 조립 후 현지 판매</li></ul> <p>⇒ <b>정확한 시장 예측, 기술지분 낮추고 실리 추구</b></p>	

## 중국 환경시장 진출 성공비결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있어 중국시장 진출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과 지리적 이점, 우리가 중국 환경시장에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 기술을 아낌없이 베풀어라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중국에 3.3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머지않아 기술우위가 사라진다. 곧 범용화될 기술이라면 기술이전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술이전 후에도 사후 관리, 부품·소재 납품 등을 통해 관계가 지속되어 새로운 협력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 중국 실정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찾아라

최고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환경분야에서 한국은 후발주자다. 선불리 기술로 승부하면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다국적기업에게 질 수 있다. 중국시장, 중국기업에 맞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 기술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활용하라

한국기업의 중국공장도 강화된 환경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중국 내 한국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적은 리스크, 프로젝트 인허가 간소화, 중국 실적 확보 등 이점이 많다. 한국기업과의 동반진출 역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중국 현지파트너와 Win-Win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라

중국시장은 현지파트너를 통해 열어야 한다. 파트너에는 독점판매권을 주고 기술 및 제품을 공급하는 방

식, 핵심부품을 공급하면 현지파트너가 완제품 조립 후 납품하는 방식 등 사업모델은 많다.

### 중국 파트너와의 주도권 경쟁은 금물이다

과거 한국기업들은 기술지분이나 경영권을 갖고 중국 파트너와 경쟁을 했다. 이제는 실리 추구다. 중국 기업으로 인정되면 더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지분을 좀 양보하더라도 시장 입지를 확대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지역별 이슈, 빅이벤트에 주목하라

국토면적이 큰 중국은 지역별 환경이슈가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별 대형 건설 프로젝트도 많다. 대형 프로젝트에는 환경공사가 필수다. 스포츠이벤트나 대형행사도 좋은 기회다.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댐과 상하수도 공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유량계 시장에 진출한 사례를 기억하라.

### 발품 팔아 최신 정보를 잡아라

중국 환경시장 대부분은 입찰 시장이다. 사전 설계단계의 정보가 없으면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 관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참석해 최신 정보들을 수집해야 한다. 또한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구축은 필수조건이다.

### 정부 지원사업을 꼼꼼히 살펴라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활용하기 바란다. 이러한 지원 사업에는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기업들이 자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시장조사, 현지 인허가 및 세금, 파트너 검증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9월 18일 기준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 <sup>(E)</sup>	IMF		OECD	
			2017 <sup>(P)</sup>	2018 <sup>(P)</sup>	2017 <sup>(P)</sup>	2018 <sup>(P)</sup>
한국	2.8	2.8	2.7	2.8	2.6	2.8
세계	3.4	3.2	3.5	3.6	3.5	3.6
미국	2.6	1.6	2.1	2.1	2.1	2.4
중국	6.9	6.7	6.7	6.4	6.6	6.4
일본	1.1	1.0	1.3	0.6	1.4	1.0
EU	2.0	1.8	1.9	1.7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 2. 환율·유가<sup>1)</sup>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원/달러	1,131	1,161	1,135	1,133	1,125	1,130	1,134	1,131
원/엔	934	1,068	1,004	1,029	1,003	1,019	1,009	1,030
원/위안	180.1	174.4	164.8	164.5	163.5	166.1	167.5	169.2
원/유로	1,255	1,283	1,213	1,213	1,245	1,269	1,306	1,337
유가(Dubai)	32.2	53.8	50.8	50.2	50.1	46.5	50.4	49.3

##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생산	1.9	3.0	4.1	3.5	2.6	1.7	2.2	-
소매판매	4.1	4.3	1.2	2.6	1.4	1.1	3.5	-
설비투자	6.9	-1.3	23.4	14.3	20.0	18.5	25.0	-
수출	-8.0	-5.9	13.1	23.8	13.1	13.5	19.5	17.4
수입	-16.9	-6.9	27.7	17.3	19.1	19.8	15.5	14.2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